

채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도 소송 냈다

“아동측 유전자검사 응해 달라... 진실 규명돼도 복귀 곤란”

법무부, 공식 입장 표명 자체... 진상규명 조사는 계속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훈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 ‘훈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조처도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임모씨와 만나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과 임씨는 이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채 총장은 이어 조선일

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소송을 준비해왔다.

채 총장은 그러나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날 재확인했다.

그는 “법무부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에 대한 불만도 예

외로 회동하고 조치 안정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채 총장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2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고검장급 간부 9명과 이례적으로 회동하고 조치 안정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훈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무법인 삼우 직원 이기석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이현규(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왔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질서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질서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상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등 다른 법적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훈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무법인 삼우 직원 이기석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훈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무법인 삼우 직원 이기석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훈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무법인 삼우 직원 이기석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붕괴위험’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추진

주승용 의원 “타당성 조사·설계 예산 6억 확보”

붕괴 위험의 우려(광주일보 7월 30일자 1면)가 제기됐던 주암댐 도수터널의 안정화 사업이 추진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민주·여수·사진)는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위한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사업목적·내용·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되며, 내년에는 환경영향 평가 등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완료된다. 이어 오는 2015년 공사가 착공돼 2018년까지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은 주암댐과 조절지법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을 복선화해 전남 동부권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7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뒤 사업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시간 지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영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소요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로 결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암댐 도수터널은 지난 5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터널 내부 구간의 열화 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저하된 상태로 안정화 사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권대행 기관 지정도 영-호남 차별”

김성곤 의원, 무안·신안 추가 지정 촉구

민주당 김성곤(여수 갑·사진) 의원은 24일 “외교부의 형평성 없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으로 인해 호남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확대 시 동일 행정구역 내 대행기관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외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뿐만 아니라 신안군 청사 이전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배제됐다.

반면, 경남의 경우 경남도청 소재지인 창원시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배제된 것처



럼 보이지만 마산시청(현 창원 마산 합포구청) 및 진해시청(현 창원 진해구청)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북구청과 경북도청 모두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안군 등 지리적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뷰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추석연휴가 끝나자 쓸쓸이 빠져나간 듯 마음이 행하다.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던 아기 울음소리도 꼭 그쳤다. 요즘 시골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도시에서 피꼬리소리 듣기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에 보았던 ‘담양 소식’기사가 떠올랐다. 담양군이 발행한 ‘담양소식’에 ‘미래 담양군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출생을 군민 모두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5월16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을 부모와 함께 소개하고 있었다. 한 달 동안 담양에서는 모두 12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남민, 봉산, 대덕, 수북면 등 4개 면에서는 단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 내가 사는 남면에서는 몇 달째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6월 말에 전남은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cross)를 기록했다. 1년 동안 전남에서 태어난 아기가 8만1000명

참체하였고, 일자리를 찾아 타지 전출이 많았다.

전라도 인구가 경상도의 반도 못되고, 충청도가 전라도를 추월했다는 인구변화는 정치·경제·사회적 함의가 크다.

인구 변동에 따라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하다. 이제 호남 의존만으로는 집권이 어렵게 될 것이며 그만큼 충청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노령화이다.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데드 크로스를 완화시키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 현재 지자체별로 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하다. 대부분 100만원, 고흥군의 경우 둘째부터 120만원, 셋째는 480만원을, 보성군은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문제는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다.

전라도 인구 추락과 피꼬리 가족

인대, 사망자는 8만4000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3000명이 더 많았다.

한국 출산율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1.24명인데 반해, 전남은 1.62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그런데도 전남은 인구감소 속도가 전국 최고다. 출산율은 최고인데 인구감소율이 높은 것은 급격한 노령화 때문이다. 전남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호남 인구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00만 명이고, 전남 190만명, 광주 147만명, 전북 187만명으로 총 524만 명이다. 이에 비해 경상도는 1320만 명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충격적인 것은 충청도 인구가 전라도를 추월했다는 점이다. 전라도는 이제 충청도의 525만보다 1만 명이 더 적다.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전라도와 경상도 인구는 비슷했다.

1949년 통계를 보면 전라도 510만명, 경상도 630만명이었다. 그리고 31년 후인 1980년에는 전라도 600만명, 경상도 1140만명으로 벌어졌고 계속해서 차이가 커졌다.

전라도와 경상도 인구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진 원인은 30년 군부독재기간 동안 영남 패권주의가 낳은 결과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영남 경제개발에 집중 투자한 반면 전라도는 저개발로 경제가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인구 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결혼과 출산장려, 공동육아, 자녀관 등 친가족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울 봄, 마을 뒷산에서 피꼬리 가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암수 두 마리가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와 4마리의 새끼를 끌고구 먹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수시로 새끼를 배설물을 먹였다. 새끼를 배설물을 먹는 것은 동지를 깨끗이 하여 뱀이나 족제비 등이 뱀새를 말고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았다. 새끼를 먹이느라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옛날에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들 ‘피꼬리 가족’이라고 했다. 보통 4~5명의 자식이 부모를 함께 6~7명의 가족을 일컬어 한 말이다. 피꼬리는 4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새끼를 직접적으로 키운다고 하여, ‘피꼬리 가족의 사랑’을 빗대어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의 표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4명의 아이를 둔 가족이 흔하지 않다. 출산율을 4명으로 늘려 피꼬리 가족을 많이 만들 수는 없을 까.

<소설가>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민은행 본영 사옥)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천
- * 첨단 구본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신인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천 (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요양병원,축사 적합)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만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 지역 내 전 2,350㎡ 건충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